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한 어느 분이 그 대학의 라틴어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까지 잘 한다고 소문난 라틴어 노교수에게 학생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교수님은 40년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독일인인 그 노교수에게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두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지칠 때쯤이면 이상한 시를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외우는 그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23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외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져서 공부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이 노교수님도 그 친구와 같이 히브리어로 그 시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나찌의 핍박을 피해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 친구가 나찌의 비밀경찰에 잡혀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친구와 그 가족들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미친 듯 페달을 밟아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눈을 범벅이 되어 따라가는데 갑자기 트럭 옆으로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친구는 뜻밖에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갑자기 소리높여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지으며 그 시를 외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 악을 쓰듯 시편을 외우며 페달을 힘껏 밟아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길모퉁이에서 그만 넘어졌고 트럭은 모퉁이 길을 돌아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찌는 드디어 발악하기 시작하였고 그 교수도 독일의 군대에 끌려갔고 러시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포로들과 같이 총살을 당하려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트럭에 실려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죽음의 길을 그 친구처럼 웃으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총을 겨누는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며 외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큰소리로 외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알수 없는 힘과 용기 그리고 평안이 그 교수에게 밀려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시편 23편을 같이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장교는 곧 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재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찬불을▶ 사투리

"이 콩깍지가 깐 콩까지냐 안 깐 콩까지냐"→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깐겨 안깐겨?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3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9월 22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추석에 돌아보는 고향집 어머니의 마당



"꽃 좋아하면  
눈물이 많다더라"  
그러면서도

봉숭아 함박꽃 난초 접시꽃  
흐드러지게 심으셨던  
어머니

별 좋은 날이면  
콩대 꺾어 말리시고  
붉은 고추 따다 넣어두고  
풀기 뽀뽀한 햇살 아래  
가을 대추도 가득 넣어 말리시며  
잡풀 하나 없이 다듬느라  
저문 날을 보내시던  
고향집 마당

이제는 와스락 와스락  
마른 대잎만 물려다니며  
잊혀진 발자국 더듬어가고  
"내 죽으면  
이 지섬 다 어쩔꼬"  
어머니의 근심이  
마당 곳곳에서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김용택 <사랑 그대로의 사랑>) 중에서

엄마가 딸에게

얼굴에도 책임이 있다  
20대까지는 부모 책임이지만  
그 이후는  
네 책임임을 잊지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뒷처리를 야무지게 해야  
나머지 반이  
채워짐을 잊지마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3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8(시 127)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486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최재학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5: 1-10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은(3)'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어지신 목사' (마지막절은 일어선서)	신경화 집사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정덕수 장로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김영길	권용일	윤형권, 신영화	김경숙, 이재영	송영철, 윤형권
8	박일영	김경숙	박상목, 이금선	김동숙, 양경배	이재영, 임성광
15	김순자	김영길	이재영, 김경숙	김미애, 조용건	전병주, 정관영
22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이기중	김순자, 정덕수	정덕수, 최득수
29	이재영	신경화	권용일, 이지영	노은숙, 최재학	최재학, 권용일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뜰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얼마전 감기가 많이 돌아 여러 교우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  
암에 걸린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린답니다. 암세포가 어찌나 센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다 잡아먹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감기에 걸렸  
다는 것은 내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증거서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기  
에 걸려도 감사하겠습니다.



1. 등록하심을 함께 환영합니다  
\*원성호, 김재연 집사, 예림, 예은(②.2남여선교회)  
☎303-0537 ☐ 16 A Howard Rd. Northcote
2. 교우소식  
\*정덕수 장로, 김순자 권사, 아들 결혼식위해 한국방문.  
큰 잔치 잘 치르시도록 기도 드립니다. (장남 재성君 결혼, 10월 5일 대구)  
\*기도부탁: 최득수 집사, 편도선 수술 후 회복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김유나(반주): 21-22일 피아노 대회참석, 열심이 한것만큼 실력 발휘되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128:2)"  
\*김순화 성도: 한국방문 후 귀국  
\*김반석 집사: 한국방문위해 화요일(24일)출국
3. 개업: 이재영 집사 '복부잔디' ☎449-1911
4. 다음주일은 '이삭줍기'주일(예고): 드러진 Silver Coin은 두 어린이를 위해 보내드립니다  
\*Marjorie Carolino (필리핀), 11살의 여자어린이  
\*Kriengsak Inthapun(타일랜드), 7살의 남자어린이
5. 수재헌금을 호남지역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영수증이나 감사하다는 서신을 보내  
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복구에 마음이 심란할텐데 그것까지 신경쓰게 하면 오히  
려 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위로의 기도 드립니다.
6. 제2 남선교회 모임: 예배 후 Tea Time 시간에 모입니다
7. 권사 기도모임: 화요일 저녁 7:30
8. 교역자 수련회: 월(23)-수(25).
9. 수요일예배: 수요일 밤은 말씀으로 빛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7:30
10. 남심자성 예술단 공연: 공연티켓 구입으로 예술단공연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10.

\*\*\*\*\*

-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몸매에 대한 열가지 칭찬입니다」
1. 손이 참 따뜻하네요
  2. 눈이 참 맑습니다.
  3. 참 가지런하고 흰 치아네요
  4. 코가 참 복스러워요
  5. 발이 부지런하여 잘살겠습니다.
  6. 늘 웃는 얼굴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7. 어깨가 딱 벌어진 것이 큰인물 감이네.
  8. 목소리가 참 부드럽고 정답습니다.
  9. 몸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10. 사람들이 많이 좋아 할 스타일입니다. -최용우-